FIKA(한국건축단체연합)의 UIA(세계건축사연맹) 가입을 축하하며

Welcoming FIKA's Entrance into the UIA

김지덕 / 본협회 국제위원, (주)유신건축
by Kim Chi-Tok

2000년 6월 29일 Australia, Sydney에서 제93차 UIA[1]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대한건축사협회(이하:KIRA)와 한국건축가협회(이하:KIA)가 공동 참여하는 ad hoc body(가칭 한국건축단체연합(Federation of Institutes of Korean Architects, 이하 FIKA))를 구성, 이를 UIA의 정식 회원단체로 인정할 것임을 결의하였다. 당초 KIRA는 KIA를 대신하여 단독으로 UIA 회원단체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UIA는 KIRA와 KIA가 공동으로 ad hoc body를 구성하여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를 받아들인 양 단체가 FIKA의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이번 이사회를 통하여 FIKA가 원칙적인 회원자격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이로써 KIRA는 KIA와 더불어 UIA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는 그동안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여 꾸준히 노력해 온 건축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건축계의 현안과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판단으로 적극 협조해 준 건축가협회측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 가능했던 것이다. 앞으로 WTO를 비롯한 건축서비스 관련 국제협상에서 UIA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으로 보아 이러한 국제 협상에서 KIRA가 직접 발언권과 투표권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UIA 이사회 역시 가칭 FIKA의 회원자격을 승인함과 아울러 KIRA와 KIA의 결정이 슬기롭고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치하하고, 새로운 회원단체로서 FIKA의 가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

FIKA의 UIA 정식회원자격 취득의 배경은 세계무역기구(이하:WTO(World Trade Organization))를 둘러싼 국제 환경의 변화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경과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앞으로 이루어질 FIKA의 활동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1995년 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 전문직능자격(Professional Qualification)이 무역자유화 교섭의 대상항목으로 취급되면서 서구에서 전문직업으로 인정되는 자격제도의 국제적 통일기준 마련이 검토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국제적 기준은 이를 통해 서비스 무역부문에서 전문직업 서비스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전문직능 자격을 상호인정하며, 전문직 자격자의 국경없는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WTO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는 건축사의 상호 인정을 위한 기준마련 및 시행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UIA가 위임받아 1999년 6월말 북경에서 개최된 제21차 총회에서 〔건축실무에서 전문성 국제기준 권고안〕을 채택한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건축사 상호인정을 위한 논의에 많은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적으로 거의 고립되다시피 한 건축교육제도와 건축사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에 대한 국제기구의 부정적 시각으로 상호 인정을 위한 협상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우리의 경우 KIA와 KIRA가 UIA와 ARCASIA(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에 각각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었으며, UIA의 건축사(Practice Architect) 관련 업무와 연락, 정보교환이 공식적으로 KIA를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 전개될 국제적 문제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실무적, 법적 사안에 대한 업무처리는 KIRA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 많은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결국 건축사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담당해 줄 단일화되고 전문적인 실무조직이 필요하며, 국제적 협상감각이 뛰어난 전문가의 선정과 제도개선실무 전문가의

1) UIA는 1948년 스위스 로잔느에 모인 22개 국가의 건축사단체 대표들이 결성하여 창립한 민간국제단체이다. 그 뒤에 성장을 계속하여 현재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속한 건축사 단체와 그 회원인 100만 이상의 건축사를 대표하고 있다.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조직의 필요성도 FIKA를 탄생시킨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된 것이다. 이로써 그 간 여러 곳에서 제기되었던 KIRA가 왜 UIA의 정식 회원자격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 어느 정도 답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FIKA의 창설 과정에서도 수차례 강조되었듯이 KIRA의 UIA 활동 참여와 국제 사회에 대한 대표성의 문제가 아니라 KIA 등과 함께 공식적으로 활동할 지위를 갖추겠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국내 외적 건축사제도의 개선작업과 상호인정을 위한 협상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엄청난 양의 많은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능력을 갖추는데 KIRA가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고, 또 그동안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꾸준히 UIA에 관계된 국제적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는 데 그 당위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 건축계의 과제로 주어진 국제단체관련활동 요구사항은 너무나 많고 또 산적해 있는 과제를 안고 있다. 거의 전면적인 제도의 대 수선을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야 하는 건축계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개선작업은 현재 국내 105개 대학 117개 학과에서 건축분야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연간 7,800명의 졸업생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성 건축사들에게 바로 그 변화의 과정을 준비하고 이끌어나갈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건설교통부의 후원으로 대한건축학회(이하:AIK)와 KIRA 그리고 KIA의 공동연구에 의해 그 윤곽이 정리되어 가는 건축사 상호인정을 위한 진행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사의 기본적 자격요건
2. 건축학교육
3. 건축학교육의 인증
4. 실무경험/훈련/수련제도의 시행
5. 전문적 지식과 능력의 입증
6. 등록/면허/자격
7. 직업윤리와 행동
8. 지속적인 경력 개발

이상에 열거된 분야들은 UIA의 전문성 국제기준 권고안과 건설교통부의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근거로 큰 범위만을 요약한 것이다. 이 중 시급하게 정책적 반영이 요구되는 사항은 이미 일부가 건축관련 법령에 반영되는 등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약 10년의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야 할 건축계의 대계를 위한 실무적인 작업 하나 하나의 과제에 대한 준비와 개선 및 시행은 모두 FIKA의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며, 이러한 임무의 수행에는 엄청난 분량의 준비와 대안 준비작업을 거쳐 국제협상단의 협상실무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FIKA에는 건축사제도의 개선 및 시행의 전반에 있어 상당한 역할이 기대됨과 동시에 많은 부분에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상황이다. 그리고 국가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21세기를 맞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건축사의 의무와 권리를 대변하고, 나아가 한국건축과 건축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축계의 대외 협상창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일원화 되어야하며, FIKA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기구로서 성장할 것이다.

이번 FIKA의 UIA 회원 정식가입은 건축분야의 전문성 국제기준의 제정 및 실행과 UIA의 여러 국제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온 또 참여할 것에 대한 KIRA의 입장이 다시 한번 분명해진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FIKA에 거는 기대는 건축설계시장의 국제개방, 건축사 상호인정, 건축학교육 인증 그리고 인턴제도와 전문직 계속교육에 대한 모든 준비와 개선 작업을 실질적으로 주관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분야의 일들이 이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겨져야 할 시기에 있기 때문에 FIKA의 중요성은 재삼 거론할 필요성조차 없으며, 이것은 국내 모든 건축단체와 관계가 있는 우리 건축계 전체의 일인 것이다. 앞서 소개된 일련의 진행과정을 통해 FIKA의 국제단체 가입이 성사된 배경에는 이미 35년간 UIA의 국제활동에 참여해 온 KIA의 임원 및 회장님들의 KIRA 공동가입노력에 대한 대승적 협력이 있었기에, 순조로운 가입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앞으로 FIKA는 UIA 활동 뿐만 아니라 국제문제에서 명실공히 한국 건축계를 대표하는 기구로 성장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양 단체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내 건축관련 단체도 FIKA의 활동에 동참을 기대하며, 또한 적극적으로 권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RCASIA 활동이나, UIA의 본부와 PPC(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 그리고 UIA Working Group의 활동 모두를 FIKA에 모여서 의견을 정리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IKA에 모이는 모든 국내 건축단체의 대표들은 우리 건축설계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익(國益) 수호의 차원에서 상호 협력해야 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후배 건축사들을 위한 진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FIKA의 UIA 가입은 결코 그 영향력이 작은 사건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 성사된 건축계 전체의 뜻이 모여 이루어진 성과가 더욱 발전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